

-기에 이르다

~하기에 이르다 — 어떤 지점에 도달하다

시간을 두고 쌓여 온 과정의 끝을 나타냅니다. 보고서나 역사 서술에서 일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말할 때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기에 이르다	폐업하다 → 폐업하기에 이르다
주로 쓰는 시제	-기에 이르렀다	폐업하기에 이르렀다
러 불규칙	이르러, 이르렀다	이르어 (×)
ㄹ 어간은 ㄹ 유지	-기에 이르다	만들기에 이르렀다
필요 조건	누적된 과정	갑작스러운 사건은 불가
시제는 붙지 않음	어간 + 기만	폐업했기에 이르다 (×)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 어간에 -기에 이르다를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은 유지되며 앞에 시제가 오지 않습니다. 이르다는 러 불규칙 동사입니다: 이르러, 이르렀다.

이미 진행이 끝난 일의 귀결을 전하므로 거의 언제나 과거로 씁니다: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다.

그 뒤에는 쌓여 온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. 즉 원인들이 누적되어야 합니다. 갑작스러운 일회성 사건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

결과는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. 마침내 무언가를 이루어 낸 시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

■ 예문

- 1 적자가 쌓여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다.
- 2 갈등이 깊어져 소송으로 번지기에 이르렀습니다.
- 3 오랜 연구 끝에 상용화하기에 이르렀다.
- 4 사태가 악화되어 정부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.
- 5 결국 부품까지 직접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.
- 6 민원이 이어지면서 결국 제도를 손보기에 이르렀다.

■ 비교

-고 말다
-고 말다는 원치 않는 결말을, 흔히 갑작스럽게 전하고, -기에 이르다는 누적된 과정을 결말까지 따라갑니다.
문을 닫고 말았다. (안타깝게도 문을 닫았다) / 폐업하기에 이르렀다. (결국 폐업에 이르렀다)

-(으)ㄹ 지경이다
지경이다는 아직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고, 이르다는 그 지점에 실제로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.
폐업할 지경이다. (폐업 직전이다) / 폐업하기에 이르렀다. (실제로 폐업했다)

-(으)ㄴ 끝에
함께 자주 씁니다. 끝에는 과정을, 이르다는 도달한 지점을 나타냅니다.
오랜 연구 끝에 상용화하기에 이르렀다.

■ 주의

- ✗ 갑자기 넘어지기에 이르렀다.
- 갑자기 넘어지고 말았다.
이 표현에는 누적된 과정이 필요합니다. 갑작스러운 사고에는 -고 말다를 씁니다.
- ✗ 결국 폐업했기에 이르렀다.
- 결국 폐업하기에 이르렀다.
-기에는 시제가 붙지 않습니다. 과거는 이르다에 붙입니다.
- ✗ 합의에 이르어졌다.
- 합의에 이르렀다.
이르다는 러 불규칙 동사여서 과거는 이르었다가 아니라 이르렀다입니다.